

리바이브 이스라엘

2020년 1월 뉴스레터

사랑하는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친구 여러분께

새로운 10년을 맞아, 저희는 이 세상에 몰아치는 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 시 62:5”**

2020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팀원 소개: 제레마야&라헬 스밀로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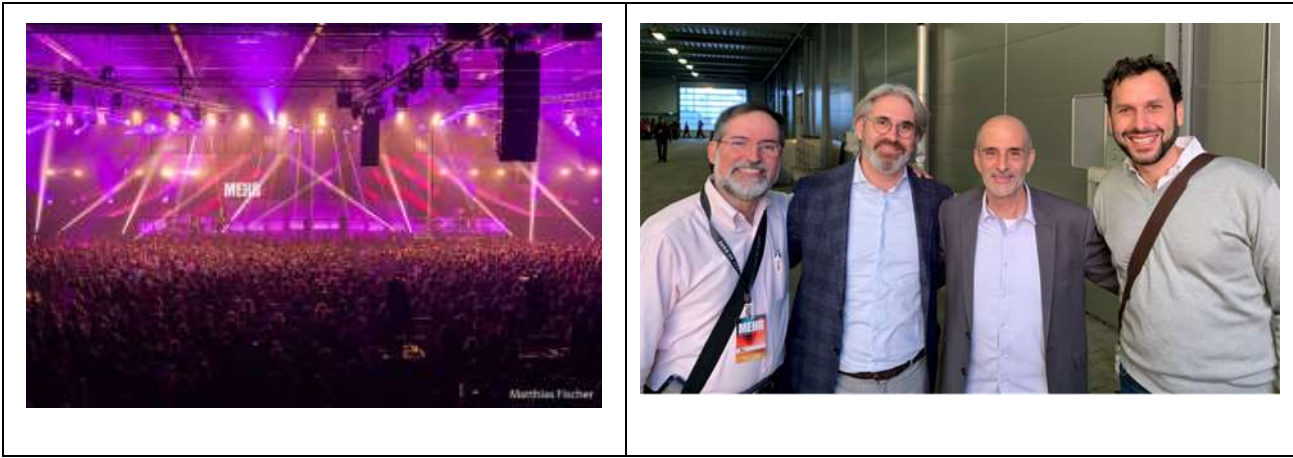
제레마야와 라헬 부부는 2013년부터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섬겨 왔습니다.

콜롬비아계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 출신인 라헬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13세에 알리야를 했습니다.

미국과 루마니아 출신의 부모님을 둔 제레마야는 이스라엘에서 자랐습니다. 믿는 가정 출신임에도 그는 어려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레마야는 조용하고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기피하고 소통을 어려워했습니다. (역지로 한) IDF 복무 시절에서야 주님께서는 보급을 담당하며 100명의 병사를 감독하는 장교로 임관된 그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는 리더십 팀에서 그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위해 회복과 구비를 이어가셨습니다.

라헬이 콜롬비아계이기 때문에 부부는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들에서 사역할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믿는 무리들 간에 공통된 기반과 사랑, 존중의 다리를 놓도록 부르셨다고 믿어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MEHR 컨퍼런스 (2020년 1월 3~6일)



아세르는 매년 열리는 MEHR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는 (개신교, 카톨릭, 은사주의, 무슬림 출신의 믿는 난민과 아직 믿음이 없는 관심자들 등) 약 1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기회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처음 만나고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세르는 전 세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유대인과 아랍인의 연합-이 핵심으로 회복시키고 계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시리아계 독일 형제인 파디 크리코르와 함께 강단에 섰습니다. 또한 그는 독일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관계-사탄이 홀로코스트로 단축시키려고 한 양국의 공동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저희는 독일이 일어나 국가적 운명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팀원인 사라가 전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사역한 유발 (2019년 12월 1~9일)



유발은 폴루즈의 폴루즈 기독교 연합과 연계되어 있고, 저희의 오랜 친구 파비안느 뵙스가 감독하는 [예언 학교](#)에서 일주일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 역사, 현대 국가와 메시아 안에서의 '한 새 사람' (엡 2:15)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한 통찰을 얻고 각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메시아닉 신자를 만나 본 적이 없는 한 프랑스 무슬림에게 전도할 흥미로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엔 신자들 간의 연합이 부족합니다. 세계의 다른 많은 곳과 다르죠.” 유발은 말합니다. “또한 프랑스 민족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반역의 영에 대적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일이 걷히고 예슈아가 계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컨퍼런스 (2019년 12월 6~9일)



탈 로빈과 로니 레주완은 슬로바키아 북부의 돌니 쿠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해, '메시아 안에서 한 새 사람(엡 2:15)'이라는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약 60명의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이 다양한 교파적 배경에서 모였는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공유하는 이들이었고 그중엔 성령 충만한 카톨릭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탈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슬로바키아를 위해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 카톨릭 공동체 내의 진실된 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 만연해 있는 반유대주의의 거짓과 잘못된 전달에 대적하여
- 지역내(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공화국) 신자들의 연합,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